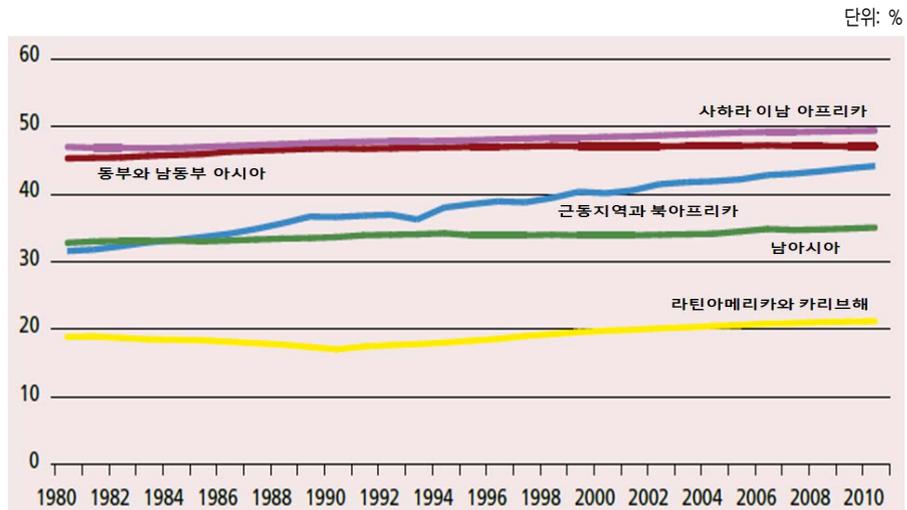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은 농업과 농촌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점차 농업부문에서 그들의 역할은 다양해지고 그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그리하여 FAO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행동계획을 1995년에 발표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의제 21장과 32장 등에서 세계적으로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들의 복지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권고지침을 제시하였다.

FAO는 지난 3월 개발도상국들의 농업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달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따른 농촌임금고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1 농업노동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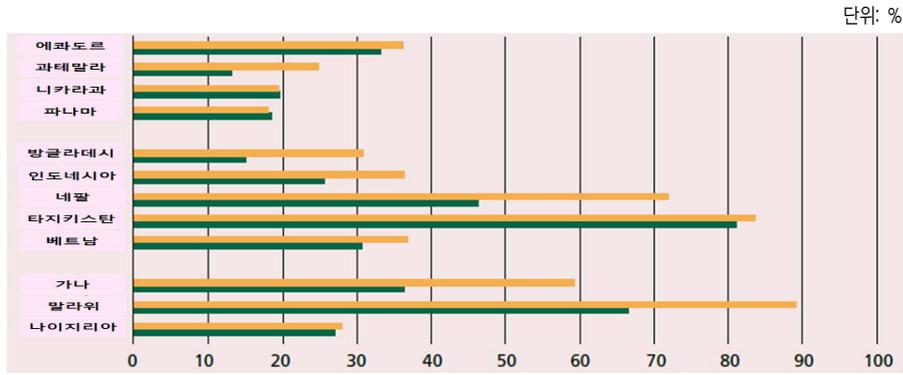


자료: FAO,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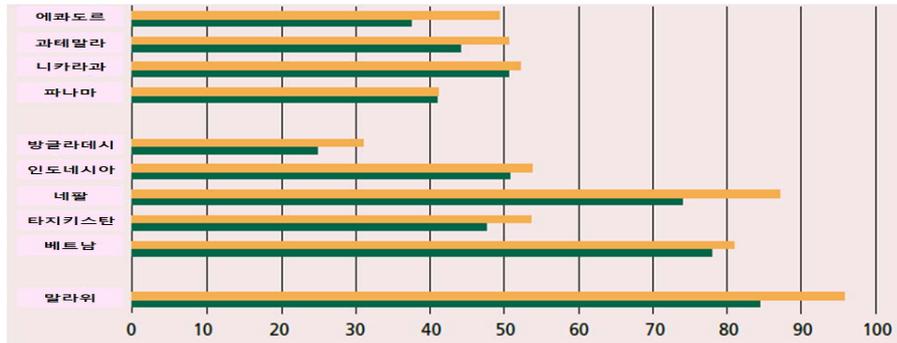
우선 <그림 1>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농업노동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43%로 나타났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약 20%이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약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들은 농업생산에 대해서 여성들에게 상당한 책임을 주는 문화적 규범 때문이다.

그림 2 성별에 따른 농촌임금고용의 고용조건

<파트타임>



<계절적 노동>



<저임금 노동>



자료: FAO

임금고용에 있어서 농촌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파트타임, 계절적 노동과 저임금 노동에 고용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말라위는 90%의 여성과 66%의 남성이, 네팔의 경우 70%의 여성과 45%의 남성이 파트타임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임금고용에서 파트타임과 저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농촌노동력보다 계절적 노동에 종사하는 농촌노동력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수준이다. 에콰도르의 경우 약 50%의 여성과 약 40%의 남성이 계절적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농촌노동력은 파나마를 제외하고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다. 말라위의 경우 약 60% 이상의 여성이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며, 방글라데시의 경우 약 80% 이상의 여성과 약 40%의 남성이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촌임금고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고용과 임금 차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대개 개발도상국들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수준과 일에 대한 경험이 적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교섭력이 떨어져 낮은 임금과 불리한 근무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작성자: 윤종열, 이정희.